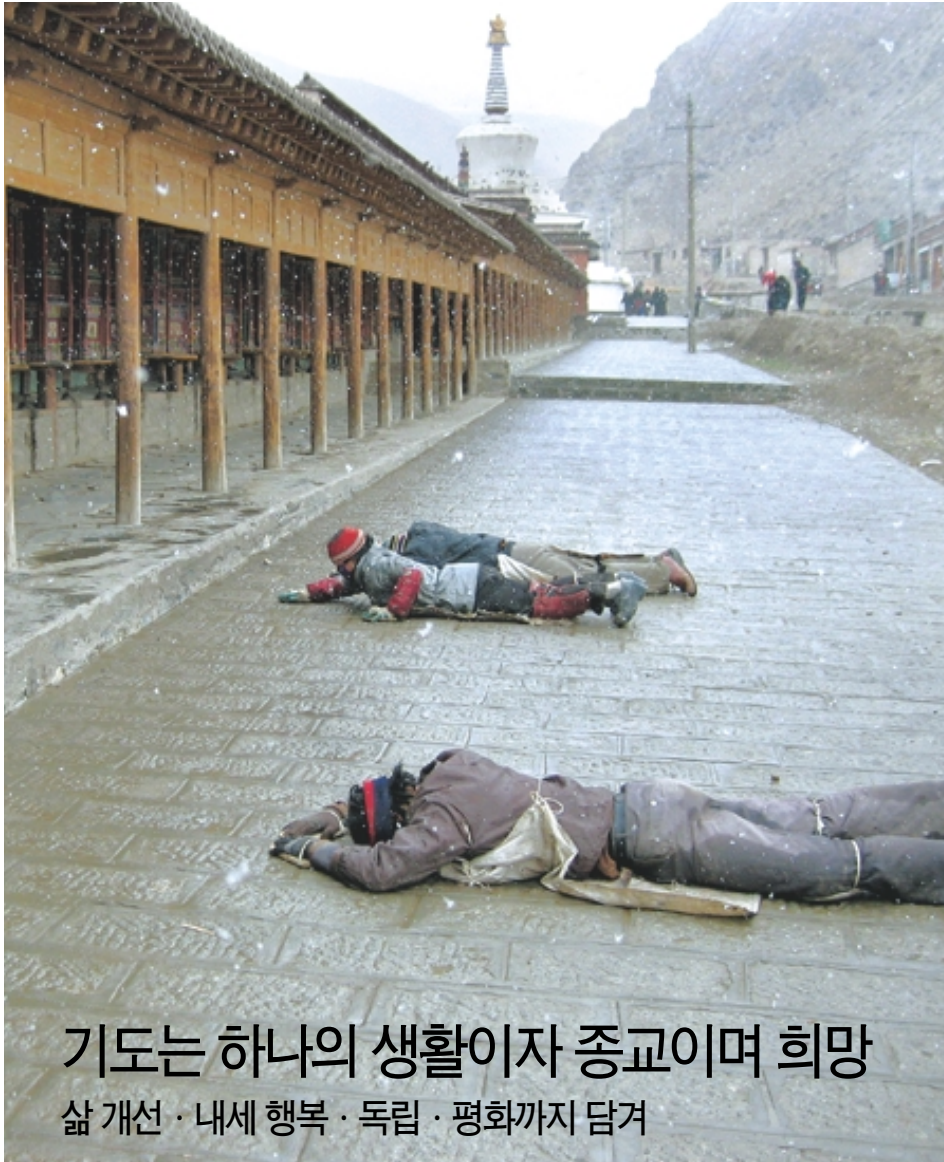


오체투지 속에 키우는 불국토 염원



대경당 앞에서 예불을 기다리는 티베트 스님들.



기도는 하나의 생활이자 종교이며 희망 삶 개선 · 내세 행복 · 독립 · 평화까지 담겨

이 사라지지 않을까, 또 그들의 불심이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이는 사실 이기적인 관점으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 뒤에 가려진 물질적 빈곤함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며, 중국으로부터 제한받고 있는 그들의 자유와 권익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활이 윤택해진다 해서 불심이 무너질까? 티베트의 오랜 역사를 확인해 본다면 7세기 초 송첸감포 이후로 그들은 군사적이고 정복적인 성향을 버리고 종교적, 사회적 위기가 올 때마다 스스로 개혁했다는 4대종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개혁의 차원에서 하나씩 생겨난 것이다. 13세기에 몽골제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도 오히려 몽골제국이 정식으로 티베트불교에 교화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만큼 티베트의 영적 생명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다음날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기어이 4월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렸다. 쏟아지는 눈 때문에 잠시 속도에 들렀다가 다시 사원으로 갔더니 불자들의 기원을 담은 마니차는 여전히 돌고 있었다. 그리고 휘날리는 눈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땅에 낮춰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이들... 문득 써디의 눈 내리는 밤에 불전에 앉아 그칠 줄 모르고 기도하는 스님의 모습이 겹쳐진다. 성도 속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먼 길을 찾아와서 힘들게 모은 찜지돈을 꺼내어 아낌없이 시주하고 삼보에 몸을 숙여 한없는 불심을 표하는 불자들이 보였다. 어느 스님이 수행에 정진하지 않을 수 있겠나. 성도의 무후사 뒤편 티베트 상가에 가보면 허연 얼굴에 심드렁한 표정으로 거니는 장족도 볼 수 있고, 절을 뛰쳐나와 오직 시주된 모기에 여념이 없어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며 떠도는 스님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일부의 모습들에 실망하고 그들을 비난하기에는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의 영적인 경건함과 순수함이 너무도 크다.

▶ 5면에서 계속

미련을 마지막으로 떨쳐버리리라. 결국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은 순환에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풍성해진다는 점에서, 현상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볼 수 있다. 티베트인들은 죽음에 접해 내세를 기약함으로써 현세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

500여 명당 3000여명 수행 '리틀 티베트'

방무스를 떠나 3시간 여 만에 사화에 도달했다. 사하는 리틀 티베트라 불릴 정도로 아직 때 묻지 않은 티베트 불교의 모습이 남아 있다. 사실 라싸는 중국정부의 통제와 관광 사업에 의해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맛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타락이라마도 이미 포탈라 궁을 떠난 지 오래 전이다. 때문에 진정한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맛보고자 하는 이들은 티베트 동부 지역을 찾는데 우리가 여행한 경로와 여기 사하가 바로 그런 곳이다.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큰 도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 길 끝자락에 거대한 사원 라브랑스가 마니차를 돌리거나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도는 하나의 생활이자 종교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원하는 것은 현재 생활의 개선에서 시작하여, 내세의 행복, 깨달음, 티베트의 독립, 세계의 평화까지 다양하다. 그 어느 것이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 정성과 믿음을 생각하면 나 역시 언젠가는 그들의 기원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다음날 예불을 드리러 대경당을 방문했다. 주메이 스님의 안내로 법당에 들어가 예불이 시작할길 기다리는데 경당 2층에서는 예불시간임을 알리는 부자들이 불교 옥상에서는 한 스님이 간헐적으로 티베트 불교 특유의 쇠소리를 내며 예불을 알린다. 스님들이 하나

둘 모여서 대경당 앞마당에서 자리를 잡고 대기하더니 어느덧 예불 시간이 되었는지 모두 신을 벗고 법당 안에 드러선다. 스님들은 모두 검은색의 장화를 신는 데 이렇게 같은 모양의 신들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자신의 신발을 찾는지 신기하다. 여느 티베트 사찰과 마찬가지로 높은 단계의 스님 순으로 자리를 잡고 예불을 한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는 동안 불자들은 문 앞에서 꿇입없이 절을 드리고 법당 한 가운데로 시주금을 경전이 적힌 종이에 싸서 던져준다. 이런 식으로 모인 시주금을 모아 스님들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생활을 하는 것이다.

숨을 설파하는 듯 하다는데, 승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직접 참관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다.

숙소를 잡고 라브랑스에 들어서니 입구에서부터 불자들이 줄을 지어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1000여개의 마니차를 돌리거나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도는 하나의 생활이자 종교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원하는 것은 현재 생활의 개선에서 시작하여, 내세의 행복, 깨달음, 티베트의 독립, 세계의 평화까지 다양하다. 그 어느 것이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 정성과 믿음을 생각하면 나 역시 언젠가는 그들의 기원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다음날 예불을 드리러 대경당을 방문했다. 주메이 스님의 안내로 법당에 들어가 예불이 시작할길 기다리는데 경당 2층에서는 예불시간임을 알리는 부자들이 불교 옥상에서는 한 스님이 간헐적으로 티베트 불교 특유의 쇠소리를 내며 예불을 알린다. 스님들이 하나

둘 모여서 대경당 앞마당에서 자리를 잡고 대기하더니 어느덧 예불 시간이 되었는지 모두 신을 벗고 법당 안에 드러선다. 스님들은 모두 검은색의 장화를 신는 데 이렇게 같은 모양의 신들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자신의 신발을 찾는지 신기하다. 여느 티베트 사찰과 마찬가지로 높은 단계의 스님 순으로 자리를 잡고 예불을 한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는 동안 불자들은 문 앞에서 꿇입없이 절을 드리고 법당 한 가운데로 시주금을 경전이 적힌 종이에 싸서 던져준다. 이런 식으로 모인 시주금을 모아 스님들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경당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마당이 넓직한 법당이 나오는데 스님들이 부처 연습을 하고 있다. 4명이 각기 기다란 부자를 입에 물고 붙여대는데, 틀난 나면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낸다. 가까이서 가보니 입술들이 모두 부르터 있는데 연습이 여간 힘든 게 아닌 모양이다. 과연, 부자 끝 나팔부분에 물이 흐르다 싶어 자세히 보니 침 속에 핏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태평하게 붙어있는 것 같더니 실인즉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연습이다. 이들 중 한 명인 로쌍 스님이 우리더러 한쪽이나고 묻길래 한국사람이라 했더니, 자기들은 한쪽을 싫어한다. 중국이 탱크로 포격한 흔적이야 마당 한쪽을 가리키는데 아직도 파괴된 채로 남아있는 건물의 잔재를 볼 수 있었다.

대경당 입구 오른쪽에는 감속성 불학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쉽게 말하자면 지도자 양성 교육을 받는 셈인데, 감속성의 각 사찰에서 시험을 통과한 젊은 스님들을 모아 각종 경전을 공부할 뿐 아니라,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도 시킨다고 한다. 원내에 학원을 홍보하는 사진이 붙었기에 혹시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원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는데, 이곳은 한쪽의 경우 입학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단다. 티베트를 위해서는 권의 주장이나 삶의 질 향상, 불멸의 포교를 위해서도 이러한 현대적인 교육이 유의하다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서부가 개발되고 외부의 문화가 티베트에 침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나 생활상이 해체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간직해온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

사하에서 란조우행 버스에 오르면서 중국에서의 주요 순례는 끝이 난다. 새삼 뉘시 모를 그리움이 가슴을 적신다. 돌아보면 사하에서의 후한에 떨고 흥원에서의 뜨거운 땀방울에 그슬리고, 사하에 이르기까지 고산준제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어하면서 두 번 다시 오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문득 문득 들었다. 지금도 여전히 흥원의 뜨거운 태양아래서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한자 한자 새기고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방무스의 하늘엔 독수리가 유유히 비상하며 산자들을 굽어보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오체투지로 한없는 불심을 발원하고 있을 사하의 생활들, 써디에 가는 길목에서 만난 삼보일배의 두 부처님은 지금쯤엔 집에 도착했을까? 정확히 무엇에 대한 그리움인지 모르겠다. 란조우와 성도에 머물면서 다시금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생활과 그 속에서 무표정하게 거리를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젖어들면서, 어느 골짜기 사찰에서 이제 막 도착했을 붉은 가사의 티베트 스님 두 분이 거리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그리움의 정체를 어렴풋이 느낄 뿐이다. ■ 동두천 중화사 주지

구담사 대한 불교계종
www.gudamsa.org

망태아(낙태,유산) 49일 천도재

• 입재일 : 양력 2007년 6월 3일(일요일) • 회향일 : 양력 2007년 7월 22일(일요일)

망태아령은 낙태, 유산된 태아입니다. 엄마·아빠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생명입니다. 그 업보는 악연이 되어 부모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 생애 좋은 인연 맺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도재와 공양을 올리어 망태아 영가가 삼도천을 건너게 해야 합니다.)

- 안 내 -

구담사는 최초로 태아영가를 위해 천도재 참회기도하는 도량입니다. 매년 3회 (양력 3월, 6월, 9월) 첫째 일요일 기도입재 합니다.

- 대학 입시수험생, 취업, 혼사, 사업, 등 태어난도와 함께 생육기도 발원 하오니 기도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기도 동참하신 분은 49일 회향 끝나고 구명식사를 해드립니다.

- 여름철이라 우유가 상해 변하니 유념하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위해 광명에 등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태아들 2만명)

- 3년봉안 위패비 보내주세요. (원불 하신분은 우편물 없고 핸드폰 연락)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농협 225051-51-113712 구담사

● 구담사 버스안내

- 1호차 : 조계사 앞(7:00)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7:10) → 김음역10번 출구(7:10) → 미아삼거리역1번 출구(7:20) → 수유역1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일동시내 → 구담사
- 2호차 : [지하철 7호선]태릉역5번 출구(7:20) → 노원역3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의정부터미널 앞(8:20) → 일동시내 → 구담사
- 3호차 : [지하철 3호선]7호선]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전앞(7:20) → 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일동시내 → 구담사
- 4호차 : [지하철 2호선]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3번 출구 버스정거장(8:05) → [1호선]구리역앞 GS백화점 육교앞(8:20) → 일동시내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구담사 홈페이지에 영험담과 참회의 글 올려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임아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알림

大韓佛敎 禪宗 二代 宗正 智圓堂 道圓 큰스님 예하 입적
2007年 5月 20日 申時

◆ 주석처 : 경주 금강사에서 수행정진 중
臨終偈 (임종계)

圓覺天地 (원각천지) 無窮造化 (무궁조화)
解脫死滅 (해탈사멸) 靈歸靈界 (영귀영계)

남기시고 홀연히 입적에 드셨다.

대한불교 선종 문도 및 종도 일동

영결식 및 49제 회향안내

근 영결식 ■ 일시 : 2007年 5月 22日 오전 9時

근 49제 회향법회
■ 일시 : 2007年 7月 7日 오전10時 ■ 장소 : 경북 경주시 울동 벽도산 금강사 대법당

문도대표 상좌 자혜
장례위원장 대한불교 선종 총무원장 정관 합장